

이긴자가 되기 전에 단에 서서 말을 하면 마귀가 죽어

예수는 성경도 모르는 거짓말쟁이

책방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이 사람이 말했는데 이제야 세상 사람들이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그대로 있되 예수를 믿지 않는 단체가 돼야 되겠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같이 죽으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겠지요? 예수는 믿음은 뭘 몰랐고, 선악과가 뭔지를 몰랐고,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였다는 걸 몰랐던 고로 예수라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거나 기운이 끊어진다 그 어디 있느냐?" 하는 욱기서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했던 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예수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예수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짓말쟁이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는 천하에 때려죽일 놈이요? 옛날에는 거짓말하면 때려죽였지 그냥 놔두질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로 해골을 까서 죽여라."라고 했던 것은 옛 법을 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구원론도 몰랐던 고로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인 고로 사람이 전에 하나님이였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이 영적 말씀이라는 것도 예수는 몰랐고, 하나님의 주체 의식이 마귀가 되는 순간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요?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으면서 십자가를 져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는 살지 못한다."고 구약성경에 똑똑하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산 적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6천년이 흐르면서 그 옛날의 인인이었던 노아도 죽어서 다시 살지 못했던 거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도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야곱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우리 단군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었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죽으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마귀가 죽인다고 그랬요? 하나님의 신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자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시록 2장과 3장에 가서 보면 "이긴자는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이긴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랬지요? 세 번째 가서는 "이긴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는 "이긴자에게는 감추었



구세주 조희성님

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알 자가 없다."고 쓰여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이려면 그 돌 위에 쓴 이름을 알겠지요? 그 돌 위에 '素紗(소사)'라고 쓰여 있다고 이 사람이 말했던 거요? 그게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것이 소사 자체가 흰 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흰 돌 위에 쓴 이름을 아는 자가 틀림없는 이긴자인 거요?

그다음에는 "이기는 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다섯 번째 말씀을 했고,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기는 자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나라 천국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고로 이긴자가 하늘나라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것인데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주면서 초초로 바라보고 그 얼굴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랬요?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은 이긴자가 마음속에 있어야 천국이 되고 성전도 되고 하늘나라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긴자가 없이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긴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생명과일이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도록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긴자가 나와서 말세를 만드는 고로 말세가 되어야 이긴자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인데 이긴자가 곧 믿음이요, 생명과일이요 고로 마음속에 이긴자의 얼굴을 새기면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먹으라는 소리가 바로 영적으로 먹으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핍박받던 신앙촌에서의 생활

나라는 의식이 선악과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라는 얘기요? 욕심 자체가 욕심부려요, 내가 욕심부려요? 나라라는 의식이 욕심부려요? 나라라는 의식이 욕심부려요? 나라라는 의식이 죄라하면 나라라는 의식은 고로 욕심이 죄라하면 나라라는 의식은 더 큰 죄가 되겠요? 죄보다 더 큰 죄가 선악과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라라는 의식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성경말씀을 마귀가 미리 알면 방해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고 나서야 얘기했지 이긴자가 되기 전에는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되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어야, 마귀를 죽일 수 있어야 입을 열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모님이 그 옛날 이 사람을 온양 전도관 전도사로 임명을 해서 그곳에서 전도사 노릇을 할 그 당시에 다 알았던 고로 말을 할까봐 영모님이 "단에 서면 안돼. 이긴자가 된 다음에 내가 단에 서서 말을 해야지 이긴자가 되기 전에 말했다가는 죽어. 그러니까 단에서 내려와. 전도사도 그만둬. 전도사하면 이긴자가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마귀가 죽어 버려요.

그러나 이긴자가 되면 이긴자를 마귀가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모님이 "단에 서지 말아라. 전도사 따윈 해서 뭐 하느냐? 내가 앞으로 큰 단에 서서 세계적인 역사를 할 사람인데 그 조그만 단에 서서 뭐 하느냐. 그만 서라." 그랬던 것입니다.

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왜 단에 서지 못하게 하실까?'하고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에 안 서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신앙촌에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 마귀새끼라고 하는 고로 그 당시에 당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 서는 너무나 비참했고, 열두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장사라도 해야 될 텐데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관 신앙촌에서 나온 물건으로 장사를 해서 열두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고로 물건을 때려 가면 마귀새끼라고 청년들이 공장 문을 다 막고 못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신앙촌에 들어오라고 해놓고 가족들과 더불어 다 굶어죽으라는 격이었으니 누가 그걸 이해하고 거기서 살겠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마귀새끼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길을 지나가다가 나를 보면 신사양복에 가래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기운이 세고, 키도 좀 크고 몸도 건장한 사람이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몸도 왜소하고 한 대 때리면 금세 죽을 것 같은 보잘것없는 놈이 가래침을 뱉으니, 그때에는 이 사람이 이긴자가 안됐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별생각이 다 나왔던 것입니다. "이 새끼를 죽여 버릴까, 그냥 밟아버릴까?" 별생각이 다났지만, 이 사람은 영생을 향해 가는 사람이고 영모님 말씀대로 살려는 철학이 확립되어 있었던 고로 내가 마귀소리 아니라 그 어떤 소릴 듣고 어떤 욕을 당해도 이걸 참고 견뎌내야 하는 마음에서 이제그대로 그 신사 양복에 묻은 가래침을 풀을 뜯어가지고 닦아내고는 다시 걸어갔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001년 6월 15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6) 나귀를 탄 발람과 말하는 나귀

(5) 모세가 헐몬산에 올라 둘째제단을 쌓다

(지난호에 이어서)
모세는 바산의 북쪽 끄트머리에 우뚝 솟아 있는 헐몬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모압평지로 돌이켜 내려왔습니다. 출애굽 40년 11월(스밧월) 1일에 요단강 너머의 여러고를 맞선 모압평지의 아라바 골짜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율법¹을 설하셨습니다.

¹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설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신6:5)'는 율법은, 오늘날 승리제단의 승리자 구세주께서 선포하신 '자유율법'으로 온전하게 거듭났습니다. 《온전한 자유율법》이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신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며 초초로 바라봄입니다. 또한 자유율법이란 나를 죽이는 법이요, 죄를 소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유율법이란 나의 몸과 마음과 그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법입니다. 맡기는 것도 내가 맡겨서는 아니 되며, 이기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기신 하나님께서 맡겨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라는 주체의식(선악과=죽이는 영=마귀)이 죽고 내(죄=영적무명)속에 갇혀 있는 양심(선한 영=하나님의 영)이 거듭나는 법이 자유율법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다시 태어나), 본래의 하나님 신분을 되찾아 영성하는 존재로 화하는 것이 자유율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요한복음 3장 5절).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항상 전하십시오. 또 그것을 여러분의 손뭉에 매어 표를 삼고 여러분의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이십시오."

(6) 나귀를 탄 발람과 말하는 나귀

출애굽 40년 9월(기슬르월) 초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 모압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의 왕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에는 미디안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 후처 그두라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압 왕 발람은 그 미디안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장로를 신임하였습니다.

모압 왕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에서

내쫓는 방법이 있습니까?"

미디안 장로는 발람에게,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브돌(Pitru)이라는 곳에 사는 예언자 발람을 초빙하여 그의 주술(呪術)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방책을 아뢰었습니다.²

모압 왕 발람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모압에서 북쪽으로 6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사신들은 브돌에 있는 탁월한 예언자 발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체를 건네고 모압 왕 발람의 말을 전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어쩌나 많는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

² 모압 왕 발람과 예언자 발람: 출애굽 40년 9월(기슬르월) 초에 이스라엘 60만 대중이 모압 고원지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 있는 예언자 발람을 초대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이며, 그의 친척은 하란의 번두리에 있던 나홀의 성에서 남서쪽으로 남하하여 갈기미스 근방의 브돌에 정착하였던 것입니다. 발람은 나홀의 하나님(창 31:53)을 믿었습니다. 예언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칭하듯이, 나홀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발람은 모압의 사신들에게,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라."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언자 발람은 그의 조상 나홀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발람에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하고 물으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십벌의 아들 발람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애굽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람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람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 집지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람이 보낸 사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소"

발람의 동행거절에 모압의 사신은 고국에 돌아갔지만, 브돌을 떠난 지 40일 만에 다시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압의 왕 발람이 사신들의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예언자 발람이 발람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모압의 왕 발람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밤잠을 자고 일어나거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후, 발람은 잡자리에 들어 곤히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꿈에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자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있는 자는 얼른 보아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미모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눈이 파랗고 금색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혼혈아로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의 딸이요, 그의 아버지는 로마 병정 판텔라였습니다. 그는 그의 소년시절부터 머리와 눈이 검은 이스라엘의 아이들로부터 혼혈아라는 놀림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영문인지 그가 장성한 청년이 되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하고 외치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럴 쯤에 나귀를 타고 있는 청년에게로 번득이는 칼을 든 두 천사가 노도와 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꿈을 꾸던 예언자 발람은 두 천사의 얼굴에서 내뿜는 광명함에 눈이 부셔서 그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발람이 아침 햇살로 밝아진 방문을 열어보니, 안마당에 매어둔 나귀 옆에 종려나무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발람은 모압의 고관들이 준비해온 냇터를 거절하고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뒹눴습니다. 그는 두 종을 거느리고 모압 관리를 따라나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 탄 발람을 미래의 나사렛 예수로 상징하고 그의 종말을 은밀히 계시하고자 하셨습니다.

나귀 탄 자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막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든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장차 나사렛 예수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 다!라고 말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 셋길로 지나가는 나귀 탄 발람을 예수로 빗대고자 하셨습니다.

에스겔 15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를 기둥에 있는 포도나무를 붙여 단질 딸같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같같이 할지라.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할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옴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